

# '5극3특' 공동 대응...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출범

### 초광역 공간구조 재편·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기 발전 전략 수립 광주AI 모빌리티 산업·전남 에너지 산업 연계 산업벨트 구상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초광역 협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양 시·도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공동 위기에 맞서 상생의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양 시·도는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를 아우르는 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균형성장 구상 '5극3특'에 호남권이 대응하는 법적 계획이다.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 시·도 부단체장이 윤번제로 맡고 초대 위원장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산업정책 전문가인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출됐다.

참여 위원에는 도시계획·교통물류·산업경제·문화관광·인재양성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와 연구기관장, 경제단체 인사들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

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균형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광주·전남은 호남 초광역경제권의 핵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합은 연말까지 의회와 집행기관을 꾸려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광역 교통망과 산업벨트, 관광·문화 협력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권을 부여한 상태여서, 광주·전남이 구체적인 계획을 얼마나 실현성 있게 담느냐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연구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초광역 공간구조 재편, 광역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산업·관광·문화 융합발전, 혁신인재 육성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이 담겼다.

광주 AI·모빌리티 산업과 전남 에너지·바이오 산업을 연계하는 산업벨트 구상, 광주·나주 광역철도망과 무안국제공항·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물류망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정 지역에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조정 메커니



1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에서 광주시청·전남도청 관계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대응과 광주·전남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동의제와 강력한 협치가 없다면 특별자치체가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분리된 지자체라는 한계를 넘어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공동 발전 모델을 세운다는 점에서 다른 초광역권과 차별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경우 전국의 초광역권 구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내년 초 최종안으로 확정돼 국토종합계획 수정안과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실상 연말에 출범하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정책 로드맵이다.

위원장인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위원회의 출범은 광주·전남 상생과 5극3특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다양한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수도권 중심 체제를 극복할 동반 성장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칭을 전남 행정부지사도 "광주시와 협력해 정부 전략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은 지난해 12월 4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꾸려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경제·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다시 꺼내들어 동남권 산업·교통 협력을 모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귀농인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전남... '어울림 마을' 호응

### 경관조성·융화프로그램 등 지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이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조성, 마을 융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주민 간 화합과 정착을 목표로 마을 꽃길 조성, 벽화그리기 등 경관 개선 사업과 선진지 견

학, 악기배우기 등 소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올해 도내 12개 시군, 26개 마을에서 추진 중인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123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매년 40여개 마을이 신청할 만큼 사업 효과성과 현장 만족도가 높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행중 나주 월해마을 이장은 "마을 꽃길을 함께 조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농어귀촌인들과 어울리게 됐고, 이웃 간 대화도 많아졌다"며 "마을 분위기

가 훨씬 밝아져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고, 박래영 장성 수산2리 마을 이장도 "사업을 계기로 마을이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맞춤형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의회 해외여행예산, 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쓴다

광주시의회가 해외연수 등 필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반납해 민생경제 회복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광주지역 기초의회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광주시의회가 선제적 신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원 전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예산 반납을 결정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기초의회 관련 수사로 높아진 정치권 도덕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해외연수비 9200만원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동행 민간인 여비 1000만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오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정해 민생안정 및 지역상권 회복 사업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생활안정과 소비쿠폰 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의회, SRF 시설·광역위생매립장 점검

### 환복위, 포스코이앤씨 악취 저감 대책 객관적 검증·측정 항목 요구도

광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사인 포스코 이앤씨가 악취 민원 확산에 대응해 배출구에 활성탄 흡착 기능을 추가하는 설비 보강과 내부에 남아 있던 잔재물 전량 제거 등의 대책을 내놴다. 단기 조치의 효과를 확인한 뒤 가동 중지기간인 19일까지 성능 데이터를 제출하고, 결과를 토대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환복위)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기후환경국, 민관 TF와 함께 SRF와 광역위생매립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포스코 이앤씨측은 악취 저감 대책에서 '배출구에 위치한 약액세정탑의 활성탄 모듈 증설, 배출가스 경로 정비, 투입피트 청소·탈취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사 자체 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복위는 '실현 환경에서의 일시적 저감효과로 불수 있고 상시 가동 환경에서의 지속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TF를 통한 객관적 검증과 일정·책임 주체·측정 항목이 명시된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환복위는 반복 민원을 차단하려면 상시 악취원으로 지목된 투입구(피트) 내부 잔재의 완전 제거와 운영관리 표준의 재정립이 필수라고 봤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이앤씨는 잔재 제거 후 주기적 세정·흡착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약액세정탑 활성탄의 교체 주기와 압력손실·흡착 포화 지표를 포함한 성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능 검증은 가동 중단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측정값과 운전기록은 TF와 공유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취약성이 드러난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도 환복위는 배수·비상 대응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환복위는 가동중지 기간인 19일까지 조치 이행과 성능 검증 결과를 점검한 뒤, 재가동 판단 기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시 수준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악취는 단순 불편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다. 의회가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F 시설 악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가 가동중이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용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